



기나긴 고층과 복원 공사를 끝내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옛 전남도청과 5·18 민주광장 분수대.

/김애리 기자

아물지 않은 오월의 상처 훈장처럼 품다

정지호 여행작가의 남도투어

Happy-Bus-Day

광주도시철도1호선 '문화전당역' <1>



도시를 읽는 가장 정직하고도 다정한 방법은 그 도시의 핏줄인 대중교통에 몸을 싣는 것이다. 자동차의 닫힌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수동적인 텍스트라면, 지하철과 버스에서 내려 두 발로 직접 걷고 타인의 체온을 느끼며 호흡하는 공간은 그 도시의 살아 숨 쉬는 맥락, 즉 콘텍스트(Context)다. 광주와 전남이라는 두 행정구역이 오랜 물리적 경계를 넘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하나의 거대한 살터로 다시 태어나는 2026년의 봄. 이 가슴 벅찬 '해피버스테이(Happy Bus Day)'의 첫 여정을 광주 도시철도 1호선 '문화전당역'에서 시작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도 필연적인 선택이다. 이 공간만큼 광주와 전남의 엮히고설킨 서사와, 무거운 과거와 경쾌한 현재가 역동적으로 교차하는 상징적인 곳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옛 전남도청·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자리' 무거운 과거·경쾌한 현재 역동적 교차 햇불 들고 주먹밥 나누던 분수대 눈길

하나의 뿌리 시·도 통합 시대적 속명 동명동 카페거리 청년들의 해방구로 깊은 상처 안고도 전진하는 도시 뿌듯

지하철에서 내려 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오면 묘한 기시감과 이질감이 동시에 덮쳐온다. 발아래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거대한 복합문화공간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드넓게 펼쳐져 있고, 그 위로 하얗게 칠해진 옛 전남도청 본관과 별관이 단정하게 서 있다. 보통의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이 압도적인 크기와 화려함으로 권위를 과시하는 것과 달리, 건축가 유규승은 '빛의 숲'을 표방하며 현대식 건물들을 모두 땅 아래로 조심스럽게 파고 들게 설계했다. 광주의 심장부인 이 공간에서, 땅 위를 온전히 차지해야 할 역사적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았기 때문이다. 덕분에 거대한 지하의 건축물들은 위압적으로 군림하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서 시민의 눈높이로 5·18 민주광장을 굽어본다. 유럽의 오래된 역사 도시들이 권위적인 성당이나 왕궁을 중심으로 방사형의 도로를 내어 공간을 지배한 것과 달리, 이곳은 스

로 몸을 한껏 낮춰 기억의 공간을 돌보이게 하는 매우 진귀하고 겸손한 방식을 택했다.

오래된 도시들은 저마다 역사의 깊은 상처를 지니고 있다. 어떤 도시는 그 상처를 감추려 안달하고, 어떤 도시는 억지로 전시하며 방문객에게 슬픔을 강요한다. 그런데 문화전당역 밖으로 온전한 모습을 드러낸 옛 전남도청은 상처를 지우지도, 과장하지도 않은 채 그저 단단하게 버티고 서 있다. 특히 2026년 5월 현재, 기나긴 고층과 복원 공사를 마침내 끝내고 1980년 당시의 생생한 모습으로 시민의 품에 돌아온 옛 전남도청 안으로 걸음을 옮겨보는 경험은 각별하다. 시민군들이 마지막까지 남아 항전했던 그날의 흔적들, 긴박했던 수화기가 놓인 상황실과 시민들에게 상황을 알리던 방송실, 앙상한 골조 사이로 별이 드는 별관, 그리고 벽면 곳곳에 선명하게 남은 뚜렷한 탄흔들, 켜켜이 쌓인 46년이라는 시간의 먼지가 날것 그대로 여행자의 시선에 꽂힌다.

처음에는 공간이 뿜어내는 비극의 무게에 압도되어 가슴이 먹먹했다. 도청 앞 등근 분수대는 광주 시민들이 모여 햇불을 들고 주먹밥을 나누던 그 뜨거웠던 연대의 온기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찬찬히 내부를 둘러볼수록, 슬픔을 기꺼이 넘어서는 묘한 생명력과 자부심이 느껴졌다. 프라하의 틴 성당이 종교 전쟁의 참혹한 상처를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 훈장처럼 가꾸었듯, 이 도청의 슬한 탄흔들 역시 지워야 할 흠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의한 국가 폭력에 맞서 목숨을 바쳐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고결한 긍지이자, 이 도시가 지닌 가장 빛나는 훈장이었다. 상처를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깨안을 때 도시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위엄을 갖춘다.

생각해 보면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몽글한 일이다. 1980년 5월, 고립된 광주 시민들이 피 흘려 지켜낸 최후의 항전지가 '광주시청'이 아니라 다름 아닌 '전남도청'이었다는 사실 말이다.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되며 행정구역은 무 자르듯 나누었지만, 역사적 고비마다 광주와 전남은 결코 분절된 두 개의 이름이 아니었다. 도청 앞 분수대 광장에 모여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받아내던 이들은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시·도민이었다. 2026년 현재,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광주와 전남이 다시 손을 맞잡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메



문화전당역 4번 출구를 통해 올라오면 만날 수 있는 옛 전남도청 별관 전경.

가시티의 탄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어쩌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숙명이다. 이것은 단순히 행정 효율을 높이거나 경제적 파이를 키우기 위해 책상물림들이 팬데로 굶는 인위적인 결합이 아니다. 원래 하나의 핏줄로 맥동하던 정치적, 정서적, 문화적 연대의 강줄기를 본래의 자연스러운 물길로 되돌려놓는 역사적 복원 작업이다. 옛 전남도청이 오랜 상처를 딛고 본연의 모습을 되찾았듯, 두 지역역시 46년 전 오월의 그날처럼 다시금 단단하게 하나의 공동체로 뭉치고 있는 것이다.

전당을 나와 다시 5·18 민주광장 앞에 섰다. 길 건너편 동명동 카페거리로 향하는 2000세대의 발걸음이 조여름의 바람처럼 경쾌하다. 한때 광주의 부촌이었으나 도청 이전과 함께 급격히 쇠락했던 이 구도심의 뒷골목은, 세월이 흘러 이제 가장 감각적이고 세련된 청년들의 해방구가 되었다. 젊은이들은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디지털 사진을 찍고, 낡고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독립 서점에서 책을 고르기 위해 문화전당역에 내린다.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이 거대한 광장을 보며 비장한 부채의식과 엄숙함을 떠올릴 때, 지금의 청년들은 광장 잔디밭에 돛자리를 깔고 버스킹 공연을 즐기며 평범하고 찬란한 일상을 마음껏 누린다. 비극의 무대가 청춘의 아지트로 전환되는 이 마법 같은 풍경 앞에서는 누구나 묘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된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뼈아픈 역사의 망각이라며 혀를 끌끌 찡자 모르나, 나는 단연코 동의하지 않는다. 이것은 결코 기억의 단절이나 훼손이 아니다. 오히려 도청 별관에서 기꺼이 산화해 간 시민군들이 그토록 목숨 걸고 쟁취하고자 했던



옛 전남도청서 관람객이 콘텐츠를 체험해 보고 있다.

그들의 '내일'이, 바로 지금 청년들이 누리고 있는 이 평활하고 무해한 풍경이었을 테니까. 가장 무겁고 아픈 역사의 현상이, 반세기가 가까워진 지금 가장 활기찬 젊음과 예술의 성지가 되었다는 것. 이보다 더 완벽하고 감동적인 공간의 승리가 있을까. 과거라는 묵직한 텍스트 위에 현재라는 발랄한 콘텍스트가 끊임없이 덧입혀지며, 광주라는 도시는 그렇게 거대한 유기체처럼 숨 없이 진화하고 있었다.

다시 지하철을 타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땅 밑으로 내려가는 길, 나는 이 도시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다. 깊은 상처를 안고도 유쾌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아는, 웅숭깊고 매력적인 어른을 만난 기분이었다. 단 한 번의 대중교통 탐사로 이 도시가 가진 수백 겹의 결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광주와 전남이 공유한 이 거대한 맥락을 버스와 지하철의 궤적을 따라 짚어가는 해피버스테이의 여정은 그 어떤 화려한 세계 여행 못지않게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5·18민주화운동의 마지막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두고 현대식 건축물 대부분이 지하에 배치돼 있으며 옥상에는 공원이 조성돼 있다.